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도

배기숙¹, 한송이^{2*}

¹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²서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Emergency Medical Participants' recogni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Job Awareness

Ki-Sook Bae¹ and Song-Yi Han^{2*}

¹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eacseok University

²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eo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전,충남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122명을 대상으로 병원 내 응급구조사를 조사하여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법적 업무규정의 현실적 제고 및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40문항에 대해 3.23±0.67점으로 나타나 병원 내 응급구조사에 대한 업무인식정도는 중간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외상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물투여가 가장 낮았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가 고유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명확한 업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spital EMT' scope of work perceived by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by surveying 122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in Daejeon and Chung-nam in order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improving EMT' roles and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their works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3.23±0.67 for the 40 items surveyed, which was somewhat higher than average. By area, job awareness was highest for trauma care, which was followed by hospital phase and breathing assistance, and lowest for medication. In order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to recognize hospital EMT' works, first of all, EMT need to carry out their jobs and roles faithfully. Therefor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substantial education programs. What is more, legally clear definitions should be made on the job of EMT, and campaigns and monitoring should be made continuously for EMT.

Key Words :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ergency medical participant, Job awaren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1]되면서 응급의료체계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

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효율적 재배치가 지속적인 법률적 제고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과를 신설하고, 국가차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시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2].

*Corresponding Author : Song-Yi Han(Seonam Univ.)

Tel: +82-10-3121-3363 email: sorang0731@naver.com

Received May 20, 2013

Revised (1st June 3, 2013, 2nd June 5, 2013)

Accepted June 7, 2013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짧은 시간 내에 최상의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료진(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의 협력이 필요하며[3] 응급의료체계에 필수 인력인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를 주로 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4].

응급구조사 중 병원 단계에 배치되어 있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들은 진료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도맡고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응급처치를 능숙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 처치의 시간을 단축시키며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도 충족시키고 있다[5].

그러나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증가와 응급실 과밀화 현상의 심화,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부족 등과 같은 국내 의료계 상황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더욱 과중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6]. 하지만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인지도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7].

우리나라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은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능력 수준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8] 많은 연구자들이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 실정이다.

응급구조사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간 유기적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응급환자에게 행해져야 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병원 내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본 후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법적 업무규정의 현실적 제고 및 병원 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대상과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대전·충남권 소재 3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

며 연구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2012년 8월 26일부터 2012년 9월 2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식 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가 불충분한 19부를 제외한 1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응급의료법규 제 41조(규칙 제 40조 관련, 별표 13)를 근거로 작성한 윤[6]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 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9문항과 응급구조사 업무인식조사에 관한 항목 총 40문항으로 EMS 영역 7문항, 기도관리 영역 4문항, 호흡보조 영 4문항, 순환보조 7문항, 약물투여 8문항, 외상 처치 4문항, 병원단계 6단계로 되어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에 관한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업무가 아니다(1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3 자료 분석

통계패키지 SPSS(ver18.0)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F-test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2.4 조사도구의 신뢰도

조사도구의 영역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실시하였다. 윤이 작성한 응급구조사 업무인식조사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0.958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신뢰도는 EMS 0.890점, 기도관리 0.873점, 호흡보조 0.787점, 순환보조 0.884점, 약물투여 0.958점, 외상처치 0.957점, 병원단계 0.887점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22명이며, 연령은 25세~29세 51명(41.5%), 30세~34세 29명(23.6%), 20세~24세 20명(16.3%), 35세~39세 14명(11.4%), 40세 이상은 8명(6.6%)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여성 91명(74.0%), 남성 31명(25.2%)순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61명(49.6%), 전문대학이 33명(26.8%), 대학원 22명(17.9%), 기타(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등) 6명(4.9%)이었다. 종교는 무교 56명(45.5%), 기독교 35명(28.5%), 불교 22명(17.9%), 천주교 7명(5.7%), 기타 2명(1.6%)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 89명(72.4%), 기혼 32명(26.0%), 기타 1명(이혼)(0.8%)순이었으며, 면허종류는 간호사가 88명(71.5%), 의사가 34명(27.6%)이었다.

병원경력은 2년미만 39명(31.7%), 2년~3년 29명(23.6%), 10년 이상 24명(19.5%), 4년~5년 12명(9.8%), 8년~9년 10명(8.1%), 6년~7년 7명(5.7%)순이었으며, 응급실 근무경력 2년미만 60명(31.1%), 6년 이상 20명

[Table 1] General features of the respondents

(n=122)			
Feature	Classification	n	%
Age	20~24	20	16.4
	25~29	51	41.8
	30~34	29	23.8
	35~40	14	11.5
	over 40	8	6.6
Gender	Male	31	25.4
	Female	91	74.6
Education	College	33	27.0
	University	61	50.0
	Graduate school	22	18.0
	others	6	4.9
Religion	protestant	35	28.7
	catholic	7	5.7
	buddhism	22	18.0
	none	56	45.9
	others	2	1.6
Marriage	Single	89	73.0
	Married	32	26.2
	etc.	1	0.8
License	doctor	34	27.9
	nurse	88	72.1
Title (doctor)	Intern	8	22.9
	Residents (EMRD)	12	34.3
	Residents (non ERMD)	9	25.7
	physicians	6	17.1
	general nurse	78	87.6
Title (nurse)	practitioner nurse	8	9.0
	head nurse	3	3.4
Hospital career	under 2 yrs	39	32.0
	2~3 yrs	29	23.8
	4~5 yrs	12	9.8
	6~7 yrs	7	5.7
	8~9 yrs	10	8.2
	over 10 yrs	24	19.7
ER career	under 2 yrs	60	49.2
	2~3 yrs	29	23.8
	4~6 yrs	12	9.8
	over 6 yrs	20	16.4
total		112	100%

(10.4%), 2년~3년 29명(15.0%), 4년~5년 12명(6.2%)순이

었다. 직위(의사)는 레지던트(응급의학과) 12명(34.3%), 레지던트(응급의학과 외) 9명(25.7%), 인턴이 8명(22.9%), 전문의가 6명(17.1%)순이었으며, 직위(간호사)는 일반간호사 78명(87.6%), 책임간호사 8명(9.0%), 주간호사가 3명(3.4%)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가 인지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정도

응급구조사에 대한 업무인식정도는 전체 40문항에 대해 합계 3.23±0.67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는 문항은 외상처치(3.85±0.90)이며 병원단계(3.52±0.79), 호흡보조(3.45±0.79), EMS(3.37± 0.77), 순환보조(3.17±0.84), 기도관리(2.82±0.88), 약물투여(2.43±0.87)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분항별로 살펴보면 EMS에서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활동(3.75±0.75), 현장출동 및 환자이송(3.69±0.86) 순이었으며 위기상황스트레스해소전담(3.08±0.8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도관리에서는 기도기삽입(3.20± 1.00), 후두마스크삽관(3.04±0.99) 순이었으며 윤상갑상막절개술(2.27±0.9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흡보조에서는 산소투여(3.86±0.89), 호흡보조기구사용(3.74±0.87)순이었으며 흉강삽관(주사침)(2.65± 1.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순환보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AED)사용(3.68±1.05), 정맥로확보(3.47±1.11) 순이었으며 골간투여(2.57±0.98)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약물투여에서는 니트로글리세린설하투여(2.90± 1.05), 에피네프린투여(2.55±1.02) 순이었으며 다이아제팜투여(2.27±0.8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상처치에서는 지혈처치(3.99±0.88), 비침습적외상처치(3.90±0.89) 순이었으며 척추고정(3.79±0.9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병원단계에서는 심전도측정(3.87± 0.84), 환자감시(3.66±0.86) 순이었으며 검사물채취(3.33±0.9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 내 응급구조사 업무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 내 응급구조사 업무 인식의 차이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결혼여부’, ‘면허종류’, ‘직위(의사)’, ‘직위(간호사)’, ‘병원총경력’, ‘응급실 총근무 경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Table 2] EMT's Awareness of the respondents

	Question	Mean	SD
EMS	1. Report and Consultation	3.16	1.01
	2. dispatch and transport	3.69	0.86
	3. triage	3.38	1.00
	4. Communication	3.45	0.89
	5. Crisis situation stress solution	3.08	0.89
	6. Document Management(Transfer record)	3.36	0.94
	7. Education(First aid)	3.75	0.75
	the average of each area	3.37	0.77
Airway Management	1. OPA, NPA	3.20	1.00
	2. intubation	2.91	0.98
	3. LMA	3.04	0.99
	4. cricothyrotomy	2.27	0.97
	the average of each area	2.82	0.88
Breathing Management	1. Oxygen therapy	3.86	0.89
	2. Use respirators	3.74	0.87
	3. Intubation chest cavity	2.65	1.00
	4. respiration	3.65	0.96
the average of each area	3.45	0.79	
Circulation Management	1. IV	3.47	1.11
	2. Interosseous administration	2.57	0.98
	3. electrical cardioversion	2.98	1.12
	4. use AED	3.68	1.05
	5. use MAST	3.29	0.96
	6. defibrillation	3.04	1.11
	7. use XCPR	3.41	0.94
the average of each area	3.17	0.84	
Medication	1. Adenosine	2.36	0.95
	2. Atropine	2.53	1.02
	3. Diazepam	2.27	0.85
	4. Epinephrine	2.55	1.02
	5. Lidocaine	2.30	0.87
	6. NTG	2.90	1.05
	7. Sodium bicarbonate	2.29	0.88
	8. Sympathetic nerve agonists inhaled drugs	2.45	1.01
the average of each area	2.43	0.87	
Traumatic	1. fixed Limb	3.84	0.88
	2. Immobilization	3.79	0.91
	3. Trauma treatment	3.90	0.89
	4. Hemostatic treatment	3.99	0.88
	the average of each area	3.85	0.90
In Hospital	1. patient monitoring	3.66	0.86
	2. ECG	3.87	0.84
	3. collected samples	3.33	0.93
	4. L-tube inserted	3.45	0.97
	5. Foley catheter insertion	3.44	1.01
	6. Other medical assist	3.59	0.79
the average of each area	3.52	0.79	
the average	3.23	0.67	

[Table 3]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the hospital difference in percep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Classification	M	SD	t or F	P	
Age	20~24	3.12	0.68	0.38	0.823
	25~29	3.27	0.67		
	30~34	3.28	0.67		
	35~40	3.11	0.68		
	over 40	3.33	0.70		
Gender	Male	3.41	0.85	1.77	0.823
	Female	3.17	0.58		
Education	College	3.04	0.47	1.76	0.158
	University	3.24	0.75		
	Graduate school	3.45	0.64		
	others	3.34	0.69		
	protestant	3.16	0.78	1.38	0.243
Religion	catholic	3.39	0.90		
	buddhism	3.08	0.61		
	none	3.34	0.57		
	others	2.55	0.52		
Marriage	Single	3.29	0.68	2.04	0.135
	Married	3.05	0.62		
	others	3.91	.		
License	doctor	3.40	0.84	1.77	0.079
	nurse	3.16	0.58		
Title (doctor)	Intern Residents (EMRD)	3.20	1.40	0.99	0.408
	Residents (non ERMD)	3.46	0.59		
	physicians	3.25	0.67		
Title (nurse)	general nurse practitioner	3.17	0.58	0.24	0.781
	nurse	3.05	0.67		
	head nurse	3.00	0.70		
Hospital career	under 2 yrs	3.27	0.78	0.55	0.735
	2~3 yrs	3.16	0.58		
	4~5 yrs	3.22	0.60		
	6~7 yrs	3.07	0.45		
	8~9 yrs	3.50	0.77		
ER career	over 10 yrs	3.16	0.64		
	under 2 yrs	3.23	0.74	0.36	0.775
	2~3 yrs	3.15	0.60		
ER career	4~6 yrs	3.39	0.65		
	over 6 yrs	3.22	0.60		

3.4 대상자의 면허종류에 따른 병원 내 응급구조사 업무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면허 종류(의사, 간호사)에 따른 병원 내 응급구조사 업무 인식의 차이에서는 EMS(p=0.043), 호흡관리(p=0.005), 순환관리(p=0.008), 외상처치(p=0.024), 병원 내업무(p=0.04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Table 4] According to the license in the hospital difference in percep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doctor		nurse		t	P-value
	M	SD	M	SD		
EMS						
1	3.44	.99	3.03	.97	2.013	0.046
2	4.00	.78	3.55	.85	2.837	0.006
3	3.76	1.05	3.22	.93	2.597	0.011
4	3.59	.89	3.38	.87	1.143	0.256
5	3.26	.93	2.99	.86	1.506	0.135
6	3.41	1.02	3.33	.91	0.433	0.666
7	3.79	.73	3.71	.76	0.631	0.529
average	3.61	.72	3.32	.68	2.045	0.043
Airway Management						
1	3.59	.89	3.03	.99	2.598	0.011
2	3.09	1.06	2.82	.96	1.038	0.301
3	3.38	.85	2.88	1.01	2.217	0.028
4	2.29	1.03	2.27	.95	0.000	1.000
average	3.09	.81	2.75	.84	1.747	0.083
Breathing Management						
1	4.29	.76	3.69	.87	3.258	0.001
2	4.18	.76	3.57	.85	3.49	0.001
3	2.79	1.20	2.62	.94	0.624	0.535
4	3.97	.97	3.53	.93	2.029	0.045
average	3.81	.73	3.35	.70	2.891	0.005
Circulation Management						
1	4.00	.95	3.26	1.09	3.405	0.001
2	3.12	.91	2.40	.95	3.763	0.001
3	3.29	1.22	2.87	1.08	1.616	0.109
4	4.03	1.00	3.53	1.05	2.096	0.038
5	3.59	.99	3.20	.94	1.791	0.076
6	3.29	1.24	2.96	1.05	1.147	0.257
7	3.55	1.00	3.36	.93	0.643	0.521
average	3.56	.82	3.08	.78	2.683	0.008
Medication						
1	2.65	1.12	2.27	.89	1.603	0.116
2	2.79	1.15	2.43	.96	1.523	0.131
3	2.47	1.02	2.22	.81	1.079	0.286
4	2.76	1.07	2.46	1.00	1.207	0.231
5	2.50	1.05	2.25	.83	1.084	0.284
6	3.21	1.07	2.80	1.02	1.816	0.072
7	2.44	1.02	2.26	.86	0.738	0.464
8	2.65	1.18	2.39	.96	0.978	0.333
average	2.68	.96	2.38	.82	1.537	0.127
Trauma care						
1	4.21	.77	3.70	.87	2.672	0.009
2	4.15	.82	3.64	.90	2.557	0.012
3	4.18	.76	3.79	.91	1.921	0.057
4	4.21	.77	3.90	.91	1.461	0.147
average	4.18	.74	3.76	.84	2.288	0.024
In Hospital						
1	3.97	.76	3.54	.87	2.603	0.011
2	4.06	.66	3.79	.89	1.764	0.082
3	3.71	.84	3.19	.92	2.738	0.007
4	3.62	.95	3.37	1.00	1.048	0.297
5	3.62	.95	3.35	1.05	1.125	0.263
6	3.68	.73	3.54	.83	0.678	0.499
average	3.77	.65	3.46	.74	1.989	0.049
total	3.46	0.61	3.10	0.58	2.792	0.006

4. 논의

본 연구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병원마다 달라 실제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병원 내 업무를 함께 일하고 있는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를 통하여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직종이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바르게 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하며, 더 나아가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활동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이러한 업무영역에 관한 부분은 응급구조사가 본 연구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 업무인식의 총 평균 점수는 3.23점(±0.67)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 업무인식도를 연구한 윤[7]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1점 만점에서 0.44점으로 나타나 윤[7]의 연구보다는 업무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윤[7]의 연구에서 병원 내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응급실 내 의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 40개 항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외상처치가 3.85점, 병원단계 3.52점, 호흡보조 3.45점, EMS(응급의료체계활성화)3.37점, 순환보조 3.17점, 기도관리 2.82점, 약물투여 2.43점 순으로 나타나 외상처치 업무영역이 높게 나온 반면, 기도관리와 약물투여 업무영역이 가장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7]의 연구에서도 외상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도관리와 약물투여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기술과 의학적 판단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외상 처치 및 간단한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인식하는 반면, 고도의 의학기술과 판단이 요구되는 호흡 및 순환 영역 그리고 약물투여 영역에 대해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보여 진다. 이는 법령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응급구조사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대의 요구에 반응하여 1995년에 제정 및 시행된 응급의료법[1]이 제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역할이 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 내 응급구조사 업무인식 40개

문항에 대해 평균 점수를 문항별로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경우는 ‘지혈처치’(3.99±0.88), ‘비침습적 외상처치’(3.90±0.89)순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낮게 나타난 문항은 ‘윤상갑상막절개술’(2.27±0.97), ‘약물투여’의 8문항이 2점대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윤[7]연구와 문항별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한 기술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인정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다소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의사와 간호사 면허에 따른 문항별 차이를 보면 면허 종류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하여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호흡관리와 순환관리 부분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업무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의사는 간호사보다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응급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호흡과 순환관리 부분이 응급구조사 영역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로 생각되어지며 본 논문이 응급실 내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이지만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병원 밖 업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9]의 논문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는 권한에서 차이가 나며 권한의 차이가 연령이나 경력의 차이와 일치하지 않아 역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인식 여부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타 직종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바르게 인식하여야만 응급구조사가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업무인식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만족도로 이어질 것이며 직무 만족도가 높아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응급처치 수행도도 높아지므로[10] 응급의료기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먼저,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응급구조사 개인적으로는 고도의 의학판단과 기술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교육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5. Reference

[1] Byeong-Woo Kang etc, Emergency Medical related laws, Chung-gu munhwasa, 2011.
 [2] Su-Chun Kim, Issue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 105, 2011.
 [3] Jung-Mi Park, Sun-Sim Kim. Comparison study of satisfaction levels on Field Practice of EMT college students by 5 Practice Field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Vol.2, No.-, pp.7-25, 1998.
 [4] <http://www.moleg.go.kr/>
 [5] Ok-Hee, Lee, The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Kongju Natioanl University, 2011.
 [6] Eun Nam Lee, Bog Ja Kim, Kyung Hee Kang, Sung Sook Kim, Young Soon Kim, Development of an In-service Education Program for Emergency Room Nurses According to Their Career Ladder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4 No.1, pp.99-111, 2008.
 [7] Jong-Geun Yun, Young Chung, Mi-Young Park, Analysis on Lmage and Job perception of EMTs among Nurses,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Vol.9 No.2, pp.41-57, 2004.
 [8] Bog Ja Kim, Eun Nam Lee, Kyung Hee Kang, Sung Sook Kim, Soon Ai Kim, Young Hee Sung, Duck Sin Sin, Kwang Ok Yi, Hui Jeong Lee, A Study of Job Analysis of the Emergency Room Nurs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2 No.1, pp.81-95, 2006.
 [9] Byeng Ju Lee, Nurse-physician Conflict: Task conflict and Relationship Conflic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10] Hyeon Tae Jo, Job Stress and Satisfac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ing i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Hospital, Department of PublicHealth,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2012.

배 기 숙(Ki-Sook Bae)

[정회원]



- 2007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0년 2월 :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석사)
- 2011년 12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 박사과정
- 2013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응급구조학, 의료 시뮬레이션, OSCE

한 송 이(Song-Yi Han)

[정회원]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사)
- 2010년 2월 :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보건학 박사과정
- 2011년 9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응급구조학, 의료 시뮬레이션, OSCE